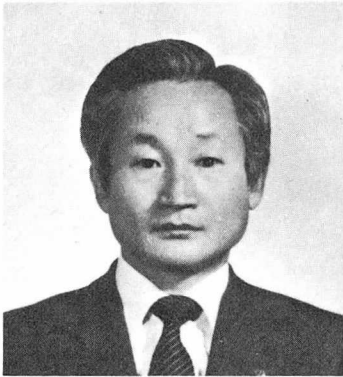




# 보험회사도 위험관리 인식을 새롭게 할때



박익수

(한국보험공사 손해보험심의부장)

## I. 위험관리 기능과 보험경영

손해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 대상인 위험을 인수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때에 이를 보장하기 때문에 위험의 인수에서 부터 보험사고 발생까지의 위험의 관리는 보험경영의 안전성 여부를 가름하는 매우 중대하고도 기본적인 기능이다. 인수코자 하는 위험에 대한 손해의 예측과 실제 손해와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노력하고 특히 실제 손해가 손해의 예측보다 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일은 손해보험 사업경영의 기술적인 분야이며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겠다.

자기가 인수하는 위험이 수량적 지식으로 어느 정도의 손실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예측이 불가능한 것인가, 위험자체가 손실을 수반하는 우연한 사건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순수 위험(Pure Risk) 인가 아니면 이익 또는 손실을 생기게 하는 사건의 불확실성, 즉 기업의 고유위험 또는 도박행위와 같은 위험에 속하는 투기위험(Speculative Risk) 인가를 파악·평가하여 보험의 대상이 아닌 위험을 가려내는 일은 보험자의 중요한 기능인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의 영역에 속한다.

손해보험이란 어떠한 우연한 사고에 의한 위험을 미리 예정한 비용으로 전화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러한 위험에 대한 예정한 비용으로 전화하기 위하여는 우연의 사고에 의한 손실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보험자는 동종 동질의 위험을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개별경제로부터 소액의 예정된 비용을 받아 들이고 일어날 수 있는 손실에 대하여 경제적 준비를 함으로써 이러한 개별경제의 위험을 부담하여 기업 또는 개인의 여러가지 형태의 위험을 제거하고 경감하여 주는 기능을 영위한다는 의미에서 사회공공적인 제도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 II. 위험관리 활동의 중요성과 역할

보험회사나 기업 및 가정에 있어서 위험관리 활동은 보험회사, 기업 및 가정의 성패를 가름하는 요소로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보험자가 인수코자 하는 위험이 어떠한 성질의 것인가, 사람의 신체에 비유하면 어느 부위에 이상이 있는가, 고질적인 병이 있는가 없는가, 병력은 어떠한가, 최근의 환경은 어떠한가 등등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사전 진단없이 개인 또는 기업의 재산의 손해를 보장해 준다는 것은 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건물의 화재위험, 항공기 탑승 위험, 원자력 재해위험, 자동차 사고위험등은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회피함으로써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개별경제의 변영이나 경제의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개인이나 기업 그리고 사회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험의 취급에서 비로소 얻어진다.

이러한 위험의 취급을 통한 회피 또는 경감방법으로서 기업이나 가정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게 된다. 첫째, 위험의 자기 부담으로서의

Co-insurance, 또는 Deductible 등 재해준비금을 스스로 적립함으로써 재해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둘째, 사고예방(Loss Prevention) 활동으로서 내화 건물의 건축, 소방도로의 건설, 화물의 포장을 보다 철저하게 함으로써 사고요인을 감소시키는 경우이다.

셋째, 손해의 확대방지(Loss Protection) 활동이다. 스프링클러의 설치, 화재경보장치의 강화등 손해의 확산을 미리 방지·경감하는 경우이다.

네째, 위험을 전가(Shifting of Risk)하는 활동으로서 청부계약에 의한 하청, 보증계약의 체결등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는 경우이다.

다섯째, 위험을 삭감(Reducing of Risk)하는 활동으로서 보험제도의 이용 및 대상부보물건의 다수가 분산하여 존재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이와같은 위험관리 활동은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또는 회피함이 없이 위험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취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현상 가운데 존재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위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있어서 위험관리 활동은 기업이나 개개 가정의 위험관리 활동보다 적극적으로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된다. 자기가 인수코자 하는 위험에 대한 손해확률의 요소인 사고발생의 빈도, 손해의 정도등을 위험별, 물건별로 정확히 파악 분석하고 또 사고 성질별 원인, 사고의 보험종목별 원인을 파악 분석하는 일은 보험사업의 경제적 효용성의 제고는 물론 경영효율화 실현의 가장 기초적인 역할에 속한다.

보험회사가 인수코자 하는 위험을 과거의 수량적 경험에 의해 정확히 예측 한다는 것은 위험 선택의 기본전제로서 이는 보험사업경영의 과학적·기술적 영역이다. 사고의 원인을 성질별로 나누어 사고의 빈도, 손해의 범위를 증감시키는 객관적인 조건, 즉 물리적 요인(Physical Hazards)이 존재하는가의 여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관적인 조건, 즉 도덕적 요인(Moral Hazards)이 존재하는가의 여부 그리고 사고의 빈도 또는 손해정도의 증가, 감소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관심의 정도가 어떠한가, 또한 화재보험의 경우 건물의 위치·구조·용도 그 건물안에서 영위하는 직종, 그 지역의 기상(풍속, 건습등), 소방시설, 소방능력, 건물의 관리능력, 건물 및 수용동산의 가연성의 정도등

여러조건을 평가 측정함이 없이 무조건 위험을 인수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보험자가 안고 있는 스스로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게하는 것으로서 실로 어리석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보험회사가 안고 있는 위험, 즉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다수·다량의 위험(Risk)을 결합함으로써만 가능하고, 또한 위험의 높고 낮음은 사건의 확률에 의하여서만 측정이 가능하다. 즉 확률, 통계, 수리등 대수법칙이 적용되면 될수록 손해의 예측은 보다 정확하게 되고 예정과 실제와의 차이가 적어지게 된다.

이와같은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활동은 미국·영국 등 선진제국에 있어서는 매우 활발하게 일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실례를 들면 미국의 보험인수실험소(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UL)의 활동이다. 1894년 설립되어 화재의 연구와 소화설비, 도난경보설비, 전기기기를 비롯, 각종 기기등의 검사업무를 수행하여 온 결과 드디어는 미국의 매매거래의 주요한 신용의 기초인 "UL"마크로 공인받기에 이른 사실은 우리에게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 III. 보험회사에 있어서 위험관리의 과제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있어서 위험관리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우선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보험경영의 기술적 기초가 되는 손해의 예측을 위한 각종 재해 통계의 정비·조사·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보험경험통계의 세분화·집적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합리적인 용역의 생산이나 원활한 판매는 불가능하다. 언더라이팅(Underwriting)에 있어서도 위험관리 기능은 보험사업경영의 경영구조, 즉 사람의 경우 신체와 정신에 해당하므로 판매활동의 절대적인 전제조건이고, 사고발생의 빈도와 사고발생시의 손해의 정도를 정확하게 미리 예측하고 이를 기초로 보험요율, 보험계약의 조건 결정, 위험의 역선택 방지등 위험의 선택과 인수를 결정함은 물론 위험대량의 원칙, 위험평준화의 원칙에 따라 적정보유 의 결정과 위험의 합리적인 평준화를 도모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보험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준다.

손해보험업계의 모두가 위험관리에 대한 깊은 인식을 새롭게 하여야 할 때임을 이 기회에 다시한번 강조한다. □